

이질적 공존을 위한 타자와 공간 인식의 문제

김진선*

요약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시대 다원화된 개인들의 이질적 공존을 주제로 한다. 먼저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논의하고, 나아가 이질적 개인들이 동등하게 차이를 나누는 탈규제화 공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공존의 공간은 공동체이다. 인간은 본래 공동 존재이고, 나의 실존의 대상으로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타자에 대한 인식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공동체의 상호관계에서 규정되는 존재로 이해되기에 '나'뿐만 아니라 이질적 타자 역시 자기의 주체로서 개인이다. 여기서 개인은 그 안에 다양성을 품고 있는 다원화된 개인이며, 이러한 개인들이 다름(차이)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탈규제화를 통해 가능하며, 그 공간에서 다원화된 개인들이 자신들의 차이를 나눌 수 있다.

주요어 다원화된 개인, 이질 사회, 타자, 공동체, 탈규제화 공간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 083627).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철학, 학술연구교수, cumdaphil@gamil.com

1. 서론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도 모두 저마다 각자 조금씩 다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어도 때때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불편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르므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호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성의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산다는 것, 즉 공존이 필연적으로 함께 살아갈 타자와 공간이 전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타자는 나와 동질적이지 않은 이질적인 다름의 존재이고, 공간은 경계로 구분되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질적인 타자와 차이의 공존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공간은 경계로 드러나기에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는 언제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계는 공간을 구분 짓고 차이를 만든다. 이 때문에 공간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이 생겨난다. 아무런 경계 없는 하나의 공간이라면 충돌이 생길 틈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공간의 경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문철(2015: 528)은 경계가 공존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사이에 둔 여러 공간의 차이를 먼저 인지하고 허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하나의 선으로 존재하던 경계를 여러 겹으로 구축하여 공존·공생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계는 공간 사이사이에 중층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경계에서 우리는 타자와 만나고 소통한다. 타자와 경계에서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아를 생성해나간다. 그래서 경계는 다양한 이질적 존재를 만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존의 공간을 생성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동등할 수 있느냐이다. 동등하다는 것은 여러 층위를 갖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이주 현상이 보편적인 이주의 시대이자 다문화사회이다. 그 만큼 이주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 중 하나가 다문화주의이다(오경석 외 2007: 22-25).

Savidan(2012: 29)에 따르면 다문화주의에서 인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문화주의를 쉽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인정문제는 보편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다원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다원주의 관점에서 다양성의 인정과 공존을 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근대사회 이후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권은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인권이 국민 국가의 기반 위에 있기에 국민이 아닌 사람은 제대로 인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정상'적인 국민이 아닌 소수자 역시 차별받았다(박경태 2016: 54). 이질적인 차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존의 방식은 이질적인 것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질적인 것은 잡종, 혼종을 의미하며, 순결하고 고유한 그 무엇에 대해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혼종이며 관계체적 존재이기에 차이는 차별하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존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존은 나와 타자가 자기를 지우고 동화되거나 다름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뒤섞여 있지만, 서로의 독자성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김옥선 2017: 294).

우리는 같음을 추구하는 동질 사회에서 점차 다름을 인정하는 이질 사회로 변모해왔다. 여기서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원래 같았던 적이 없는 뿌리 깊은 다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특성으로 인간을 분류하거나 인류를 규정하는 것은 인종주의에서 보듯이 오히려 반인권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다름을 넘어서 같음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선'을 내걸고 상호관계를 맺으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공공선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어쩌면 그것은 정의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이다. 답을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다원화된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타자와 공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인간의 실존은 필연적으로 타자를 전제하며, 개

인들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자와 공동체는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적 차이에 근거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다원화된 개인들의 이질적 차이가 동등할 수 있는 공간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한 공간에 관한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타자에 대한 실존적 인식

1) 타자 인식과 인정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그것이 있어서 개별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인간 일반의 공통적인 것에서만 아니라 타인과 구별되는 것에서도 찾는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통해서 존재 의미를 획득하는 한편,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실천함으로써 존재성을 유지한다. 이 두 경우 모두에 전제되는 것이 타자이다. 즉, 타자의 존재 없이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인간 일반으로서의 존재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Deleuze(1999: 220)는 “타자는 하나의 위협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표현하면서 등장하며, 이 세계는 타자 없이는 펼쳐지지 못한다”고 했다. 나의 실존의 대상으로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고 무(無)로 만들 수도 없는 타자는 마치 ‘지옥’과 같고 위협적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생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결국, 타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타자를 필연적으로 조우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의 근대적 개인의 출현으로 인간이 주체로서 보편적 인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타자는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동화돼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동화되지 않는 타자는 무화(無化)돼야 했다(박구용 2003: 121). 다시 말해, 타자는 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체에게 동화되거나 도구적으로 이용되는 존재로 인식 되었던 것이다. 나

아가 주체의 권한이 점차 국가권력으로 이동하면서 개인들은 국가공동체에 동화되어야 할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 되었고, 개인으로서 '나'의 인식과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감염되고 동화되었다. 지금 현실에서도 여전히 민족국가의 포용/배제의 논리에 의해 경계 밖 존재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각자 자신을 의식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언제나 항상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듯 이 사회는 상호 간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체성들이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정의 부재 또는 부적절한 인식은 피해를 유발하고 억압과 같은 형태를 만든다. 더 나아가 부적절한 인식들은 어떤 이들을 잘못된, 왜곡된, 그리고 축소된 존재로 가두어 버린다(Taylor 1994: 42). 우리에게 익숙한 '차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개별성을 배제하는 일이다. 이 불평등한 행동은 개인의 구체적인 개별성을 부정하는데, 한 개인을 출신, 종교, 성별로 축소하기 때문이다(Charim 2019: 159-160)."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는 차별의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인식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완전한' 정체성 개념으로 규정돼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은 단순히 누군가를 게임에 끼워주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다양하고 풍부한 특성을 호명된 이름(정체성)으로 소거시킨다.

눈앞에 마주한 타자를 실존하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때, 타자에 대한 이해는 왜곡되고 '우리'의 가치에 의해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제주에 온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예멘과 무슬림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이들을 마치 완전한 이슬람 근본주의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 규정하고 혐오를 쏟아냈다. 난민에 대한 혐오는 실존하는 난민을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확산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프레임'과 '가짜뉴스'들이 떠들썩했다. 난민들에게 이슬람 종교·문화에 대한 극단적 근본주의 세력의 탈(완전한 정체성)을 씌움으로써 그/그녀들을 피해

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버렸다.

한반도에서 경계로 구분되어 마주하고 있는 북한도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가 남아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는 공식 선전과 미디어에서 전파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¹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동질적인 것의 토대 위에서 그 차이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지나치게 이질적인 것을 강조하지도 무조건 동질적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위치에 있다는 조금 더 입체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김연희·정유리 2014: 18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인정에 있어서, 동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질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라는 이유로 민족·언어·역사 등에 대한 동질의 문제로만 접근하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만 규정해서는 인정의 부재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무슬림 혐오,² 난민 혐오와 같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2) ‘면역’에서 ‘공동체’적 인식으로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 감염증의 팬데믹 사태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면역체계가 형성되어 진정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Esposito(2015a: 315)에 따르면, 과거 에이즈가 등장하면서 바이러스는 우리 내부에 침투해 우리를 부조리한 세계로 끌고 가는 진정한 악마처럼 여겨졌다. 이때부터 면역화 요구는 우리

1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의 법률적 용어이다. 관련 연구자나 일반인들은 ‘새터민’, ‘탈북자’, ‘북한 이주민’, ‘탈북 이주민’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엄태완은 이들을 ‘탈북난민’으로 지칭하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대다수 난민들이 경험하는 외상적 경험과 탈북난민들이 남한 이주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을 비교하고 구체화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를 도출하고자, 이를 강조하기 위해 ‘탈북난민’으로 지칭한다(엄태완 2010: 20-24).

2 카림은 무슬림 혐오에 ‘비합리성’이 놓여있음을 지적한다. 과거 유대인은 온전하지 않은 주체로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난받았던 것처럼, 무슬림들은 이슬람 혐오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이 스스로 상상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Charim 2019: 246-247).

삶에 부여한 형식 자체가 될 때까지 막대하게 자라났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화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기 생존의 대응 방식이다. 하지만 면역화가 자연적이고 본래의 것은 아니다. Esposito(2015b: 398)에 따르면, 사실 면역 항체는 항원의 침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외부 구성 요소로부터 자신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는 유기체의 능력이 아니라 면역체계의 내적인 자기-규제[조절] 능력이다. 따라서 항원이 부재해도 항체 세포가 전파된다면, 이는 면역체계가 전적으로 자기-충족적인 내적 승인[동일화]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면역화가 자기 내부에서 완결되는 되는 것이기에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 즉 바이러스는 은유일 뿐이다. 그래서 Esposito(2015b: 399)는 바깥이 없고 자기-충족적인 면역체계로 인해 우리가 공동체에 의해 변경되는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면역체계는 자기 동일화 방식으로 작동하여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를 차단/거부하기 때문이다. 실존의 필수조건인 낯선 타자—위협이자 새로운 생성의 계기—와의 공존은 면역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면역화가 자기-충족적이기에 타자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의 실존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면역’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이무니타스’(immunitas)이다. 이무니타스는 법과 관련된 용어로 ‘의무를 면제받다’, ‘직무에서 자유로워지다’, ‘세금을 면제받다’ 등의 의미이다. 이 말은 ‘의무’, ‘책임’, ‘선물’ 등을 뜻하는 ‘무누스’(munus)에서 파생됐다. 무누스에 부정접두사 ‘인’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무니타스이다. 반면 ‘코무니타스’(communitas)는 무누스와 ‘더불어/함께’(cum) 있음을 뜻하며, 이것이 공동체의 어원이다(Esposito 2015b: 408). 즉, 공동체와 면역은 무누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이에 두고, 전자는 타자에 대해 의무 지기, 외부에 열려있기를 함축하는 반면, 후자인 면역은 이런 것들로부터 면제되고 자기를 달아버리는 경향을 내포하게 됐다. 이 지점에서 Esposito(2015b: 402)는 이무니타스에서 무누스로의 회귀와 함께 공동체, 즉 코무니타스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 무누스로의 회귀는 고유성의 상실, 우리 자신의 것의 탈고유화와 약화라는 이념이 필요하며, 바깥으로부터 ‘자기(se)’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자기(se)’를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전제 자체에 대해, 즉 면역적 논리의 전제 차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에스포지토의 주장은 인간이 공동체와 별개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자에 대한 '면역'이 아니라 '공동체'적 인식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인간은 과정으로서만 정체성을 가지며,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리고 그 개체들의 관계로 존재하는 전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Balibar 2018: 110-112). 따라서 타자와의 공존의 장으로서 공동체는 자기의 고유성이나 순수성에 천착하여 면역화를 가동하면, 결국 공동체의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Esposito(2015a: 317)는 지금 시대에 두 개의 면역적 강박에서 현실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한편에는 남아도는 풍요를 공유하기 거부하는 서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서구적 세속화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슬람적 근본주의가 있다. 대립된 두 세력이 타협 없이 충돌할 때, 세계 전체는 자기면역 질병의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재 진행 중이며, 면역적 논리의 전제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전쟁 또는 자기 보호를 위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³

면역에 대한 에스포지토의 비판적 논의는 자기와 타자가 생존을 위해 고립되고 서로 적대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밖으로 열린 존재로서 서로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김치완 2020: 68-69). 공동체는 다양한 개인들이 관계 안에서 서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공존의 장(場)이어야 한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 자기 내부로 천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예방을 위한 면역이 불가능하기에 자기 면역화를 가동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타자의 출현으로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생성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다원화 사회의 차이 인식

역사적으로 신에 의한 것 또는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은 인간의 선택이나

3 “미국 등이 이라크 침략 전쟁을 위해 내건 '예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기반적 논리는 자기 면역화의 뒤를 린 표시인 셈이다(Esposito 2015b: 411).”

결정을 초월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에 의해서든 인간 본질에 대한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든 말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했고 우리의 인식도 바뀌었다. 그래도 아직 이러한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한국사회 역시 동질적이고 고유한 것을 내세우며, 그것들의 변화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느끼고 혐오와 배제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단일민족이라고 말해지는 우리나라 역시 민족 정체성이 고유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고려 통합 이후 ‘한인(韓人)’이라는 종족의식이 형성된 이후, 조선 시대 조선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나타났다(김진선 2020: 16-18).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그것에 기대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의 징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유형이 다른 타자들 사이에 하나의 유형으로 병존하는 것에서 다원화가 일으키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소속의 변화(우리가 사회에 속하는 방식의 변화)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변화이다. “다원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 즉 우리가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도 변화시킨다(Charim 2019: 37).” 조선 시대 양반은 지배적 유형으로서 평민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이 사회의 지배적 유형인 양반이라는 체면을 중시했다. 그 시대를 양반사회라고 할 만큼 양반은 세계관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개인들이 여러 유형이 병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성이 증가하는 지금 시대에 종교적, 문화적인 공통된 세계관 없이 불완전하고 다원화된 개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

인간 사회는 신(신성)에 의한 질서에서 인간(이성)의 질서로 이어지면서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그다음은 또 다른 무언가에 의한 질서로 재편돼야 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Harari(2017)는 신(神)적인 새로운 인류 ‘호모 데우스’(Homo Deus)를 예견하기도 했다. 오늘날 공간으로서 세계와 인간이라는 존재의 경계는 기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돼 가고 있다. 그런데 ‘변화’만이 기정사실이라면 불완전하고 불명료하지만, 그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묵묵히 다원화를 실천하면서 침묵하거나 피하지 않지만 억압하거나

강제하지도 않고, 선불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공유된) 세계관을 달리 말하면 ‘우리’이다. ‘우리’는 타자와의 공존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외부적인 것이나 때로는 내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소환한다. 인간인 한 인간인 ‘우리’라는 범주를 초월하기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우리’에는 타협하기 어려운 기본 가치들이 내재해 있다. 이 ‘우리’의 가치는 고정된 목록이자 확정된 규범으로 전제된다. Charim (2019: 42-43)은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협상 가능성이 은폐된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가 완성된 질서, 규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 속에서 수행되는 과정 그 자체임을 가려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기본 가치의 수용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고, 이주자들은 ‘우리’의 기본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기본 가치는 마치 ‘주도 문화’⁴처럼 고정되고 확정된 것이어서 논의할 수 없는 본질화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호소는 전혀 민주주의적인 과정이 아니며, 가치에 대한 복종이 주제가 돼버린다.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그 무엇이 낯선 것의 침입이 없으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구성원들의 내면에서 또는 공동체 생활 양식 속에 존재한다. 타자의 방문으로 인해 그것은 마치 공동체의 수호신처럼 소환되고 타자를 배제하거나 동화시킨다. 여기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기본 가치는 그 사회 집단의 ‘정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의 배경에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적 이웃이 자리한다. 이질적 타자가 들어올 자리는 열려 있지 않다. 하지만 이질 사회로의 이행에서 우리는 더는 ‘정상’을 고집하기 어렵게 되었다.

“동질 사회가 우리의 완전한 소속을 약속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 들어 주고 우리에게 완전한 정체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질 사회, 다원화 사회, 다양성의 사회는 사람들이 이 사

4 ‘주도 문화(Leitkultur)’는 “독일에서 나온 사회 정치 개념으로 다양한 이민자들이 들어와도 기존 사회의 중심 되는 가치, 문화가 통합의 원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관용, 자유, 남녀평등 등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좌파나 녹색당에서는 인종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Charim 2019: 40).”

회에 더는 온전하게, 직접, 당연히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 사회는 또한 우리가 더는 같은 종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전처럼 같은 종류의 우리로 구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온전하지 않다(Charim 2019: 45).”

이제는 일자(一者)로서 절대적 유형, 모두를 위한 구속력 있는 유형은 없다. 이질적이고 불완전한 개인들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Falk(1998: 23)는 신자유주의가 다원주의 사회이자 다양성이 인정되고 장려된다고 하면서, “사회적 다양성은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문화자원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라 할 수 있지만, 다양성의 인정, 즉 차이의 공존을 위한 인식의 변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개체와 문화 등의 차이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건설된 기반 위에 있는 원칙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평등의 역동성을 수행하고 차이 속에서 평등의 참신한 형태가 출현할 수 있다(Savidan 2012: 42). 차이에 대한 논의 중에서 영(Young)의 ‘차이의 정치’는 주목할 만하다. 영이 말하는 차이는 단순히 동일성의 부정이 아니라 개별 특수성을 뜻하며, 단일한 기원을 갖지 않는 무한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성, 다원성, 차이에 주목하고 긍정하는 것이 곧 정의의 실현이다. 영의 정의론에서 억압은 구조적 부정의이며, 이러한 부정의는 “이질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지배 집단 중심의 보편성과 일반성만을 강조하는 동일성의 논리”와 연관된다(김은주 2018: 20). 그런데 집단의 정체성, 즉 한 집단을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공유하는 속성이 아니라 서로 맺는 관계에 있다(김은주 2018: 25). 따라서 집단이 강제하는 동일성의 논리는 실제적 근거가 없다.

Charim(2019: 31)은 오늘날 사회가 단 하나의 유형으로, 단 하나의 환경으로 조직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변화의 가장 무거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이라는 세계는 더는 유일한 환경도 아니고, 하나의 당연한 세계도 아니다. 동질 사회 환경의 해체와 동시에 우리는 이제 온전하고 당연하며 명명한 정체성과 소속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

는 사실이며, 비(非)다원화 사회인 동질 사회로 돌아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Charim 2019: 11). 이러한 ‘기정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와 타자는 불완전하게 ‘벌거벗은 채’로 중립적인 영역에서 만나 동등하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소통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3. 이질적 개인들의 관계-공존

1) 실존적 공동체 인식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정의하는 방식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공동체의 핵심 요소는 지리적 공간, 공동의 유대,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신용하 외 1985: 64). 국가 및 일반적 공동체의 정의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공유되는 가치 또는 성질이 있다. 공동체가 하나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 안에 특유의 요소가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상호 관계성을 포함한다. 민주적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즉 시민이나 개인은 공유되는 ‘공공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한에서 타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정의된다(이선미 2006: 152-153). 공공선의 추구하고 상호관계로써 정의되는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다원주의적 공동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공동체에 공유되는 가치나 성질이 동질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국가와 민족이 그것을 대표한다는 생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동질성에 의한 공동체 문제와 개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고 다원화된 개인들의 공동체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Charim(2019: 11-12)에 따르면 동질 사회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며, 동질 사회의 형성을 위해서 폭넓은 정치 개입이 필요했고, 종종 폭력과 억압이 동반되었다. 그러므로 동질 사회는 의도된 정치 행위의 결과이며, 이러한 사건이 곧 ‘민족 형성’이다. 민족 형성은 이미 존재하는 다양

성의 동질화였지만 사실상 민족의 동질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다. 동질 사회는 상상이고, 민족은 잘 기능하는 허구로써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상상은 실제로 하나의 민족 사회를 만들어 냈다. 민족국가에서 개인은 국민으로서 동등했지만 개인적 특성은 무시되었다. 민족은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 규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되면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는 민족 동일성에 의해 부차적인 것이 돼버렸다(Charim 2019: 17-23). 따라서 동질 사회에서도 차이는 존재했지만, 그 차이들은 의미를 상실했다.

Charim(2019: 45-55)의 분석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생활양식의 다원화로 인해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서 차이가 공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다원화는 정치 운동이 아니라 목적 없는 변화가 낳은 효과로서 민족의 형상을 재규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 형상의 침식을 촉진한다. 우리는 매일 매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원화는 우리 각자 안에 자리 잡는 다양성을 의미한다. 다원화된 개인주의 시대의 공동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다양한 삶들이 엮어진 '실존적 공동체'(existential community)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은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들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또한 고유한 내재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의 감염과 상처에 열려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 존재로서의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며, 타자를 동화시키거나 배제하지 않고 접촉과 만남에서 '함께 더불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벌거벗고 끔찍한 이미지들이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텔레비전 화면 위에 등장하는 수백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난민들의 신체, 얼굴, 표정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던 말인가? 이들이 공동체와 그 부재, 또한 그 필요성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던 말인가? 모든 탄생과 심지어 가장 익명적이고 일상적이며 겉보기에는 진부한 마주침에서 상기되는 것은 여전히 공동체가

아닐까? 즉, 관계, 우리의 함께-있음(cum), 함께-있음으로써 ‘우리’가 아닐까 (Esposito 2015b: 400)?”

‘함께 있음’으로써 공동체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전근대적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나’와 ‘너’로 분화되기 이전의 ‘우리’라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최성식 2008: 315-318), 동질성에 기반을 둔 어떤 특정한 기본 가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관계체적 존재로서 공동체에 의해 변경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고 진부하기까지 한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관계의 현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함께 더불어 있는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공공선은 마치 민주화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같이 공동체의 다양한 개인들이 함께 있음을 구현해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추구되어온 것이다.

2) 혼종과 탈규제화의 공간

다원화된 개인들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는 더는 기존의 집단적 시각에서 불가능하다. 또한, 거시적인 담론으로써 동질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의 의미도 퇴색해 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공동 존재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다원화된 개인의 공존은 그것이 가능한 공동체적 공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다름을 동등하게 인정받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적 공간’(diasporic space)이다. 디아스포라적 공간은 근대적 공간 경계를 허무는 초국가적 이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다문화 혹은 혼종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은 출신지와 이주지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사는 장소를 어느 한편에만 귀속되지 않는 초국가적 혼종 공간으로 만들어 가면서 고유의 장소 정체성을 형성한다(이상봉 2013: 219).⁵ 이 공간의 혼종성은 공간의 경계를 해체함과 동시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는데, 이때의 장소성은 이주자들에 의해 개척된 것인 동시에 또 다른 타자

의 참여에 열려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적 공간은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억압과 배제가 작동하지 않는 다원적 주체들의 공간이라 할 것이다. 이상봉(2013: 221)은 사람들의 생활공간인 '시장'에 주목했다. 시장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주변화와 타자화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공간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지, 즉 일상의 실천을 통해 현지 사회의 구조적인 힘과 외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가는지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코리아타운⁶의 외부적 경관은 다른 지역의 코리아타운과 시뒀 다르다. 123개 상점 중 절반 정도가 한국(민족)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만 한국어로 된 간판이 4곳뿐이다(이상봉 2013: 236-237). 이 코리아타운은 "한국 문화라는 민족성이 소비되는 이른바 '공간의 상품화(소비)'와 재일코리아인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 정체성'이 결합하는 공간"이다(이상봉 2013: 238). 초기에는 정주 이주민, 이주노동자, 보따리 장사, 일본인 등 다양한 집단이 각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점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했었다. 그런데 이 차이의 확인은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 다양한 차이들이 공존하는 혼종의 공간이며, 억압과 배제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생의 공간으로 탈바꿈됐다(이상봉 2013: 243).

디아스포라적 공간이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혼종의 공간이었다면, 두 번째는 보다 일상적인 공간인 '만남 구역'⁷이다. 카림은 이 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5 김현숙의 경우는 결혼이주민에 주목하여, 이들이 정주를 목적으로 하고 사이에 낀 존재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초국적 연결자이며, 이들은 한국 가족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가족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공간이 선주민 가정 공간과 차이가 일어나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현숙 외 2013: 39).

6 행정구역상으로 붙여진 명칭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재일코리아인의 공간이었던 미유키도오리 상점가가 1993년 '코리아타운'이라는 문을 설치하면서 일명 '코리아타운'으로 불리게 되었다(이상봉 2013: 222).

7 만남 구역(Begegnungszone, 베게그눔스존)은 오스트리아 등에 도입된 교통 구역으로 차와 사람, 자전거 등이 모두 다니는 도로이며, 최고 시속이 20km/h이고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 된다. 독일에는 '교통완화지역(Verkehrsberuhigter Bereich)'이 있는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자동차가 보행자의 걷는 속도와 맞춰 주행해야 한다. 이곳은 아이들도 노는 공간이기도 하다(스케치북다이러 2017).

“이 구역은 도로교통법이 만든 질서 체계의 규제를 벗어나 작동한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속도 제한 이외에는 규정, 교통 표지판, 신호등이 거의 없다. 교통은 스스로 관리된다. 개입하는 아무런 권위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갈등 없이 함께 이용하는 공적 공간이 나온다. 공유 공간(shared space)의 출현이다(Charim 2019: 228).”

일반적으로 도로에는 안전을 위해 복잡한 규칙과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만남 구역은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도로이면서 오히려 최소한의 규정만으로 유지된다. Charim(2019: 229)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규칙에 대해 모순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외면적 권위와 강제된 규율을 지키기도 하지만 저항하기도 한다. 심지어 규칙과의 게임이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일반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더라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주의하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호등, 표지판, 건널목 등의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 주체들의 의식과 실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쿨존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 실제로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었다. 스쿨존 내 운전자의 교통 규범의식 조사연구(박기준·송기욱 2021)에 따르면, 범칙금 상향 등 처벌 규정 강화 내용을 인지한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규제 강화가 사고 발생을 줄인 것인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운전자의 의식과 실천이 사고를 줄였다는 점이다. 교통 주체의 의식이 중요하기에 법적 제재에만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고, 각종 편법을 양산하고 갈등을 초래하여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Charim(2019: 231)은 규제를 넘어서면 혼란이 아니라 공유 공간이 있다고 말한다. 이 공간에서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면서 자신들의 차이를 나눈다. 만남 구역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세부 규정 없이 그 공간의 다른 개인들을 주의하고 배려한다. 규제를 넘어서는 탈규제화가 공간을 모두의 각자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가 매일 타자와 마주치는 삶의 공간에서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주의와 배려를 내면화한다면, 차이가 동등한 공존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

디아스포라적 공간이 탈고유화된 혼종의 공간으로써 다양한 차이들이 공존한다면, 만남 구역은 탈규제화된 중립적 공간으로써 개체들이 각자 길을 가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한다. 이러한 탈고유화, 탈규제화 공간에 대한 사유는 도가의 도-공간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3) 도가의 공간 인식

공간은 존재의 바탕이자 존재함을 가능하게 하며, 존재의 다름(생성-변화)을 구현한다. 노장철학에서도 자연물의 생성 기초가 공간에 있고 공간은 바로 운동의 근원이라고 본다. 이명수(2013: 116-118)는 도가의 '자연'은 "행위 없는 공간 상태이면서, 불가능할 것이 없는 존재의 공간"이며, 이러한 도가의 공간은 '무위자연(無爲自然)'과 같고, 무위하지만 모든 존재와 생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권위'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노자(老子)는 천지(天地)가 모든 사물에 공평하게 존재하며, 천지 사이는 마치 풀무처럼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최진석 2005: 64). 천지는 존재의 생성과 운동의 근원적 공간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 역시 천지자연의 생성-변화의 일부이다. 장자(莊子)는 그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생사(生死)가 마치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과 같음을 깨닫는다(莊子 2010: 428). 형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시작의 근원을 살펴보면 '무(無)'이다. 여기서 무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텅 비어 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무는 아니다.⁹ 운동

8 한승혜는 『다정한 무관심』에서 외국 여행을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외국 여행을 간 한국 사람이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두는 한국과 달리 그곳 사람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런데 어느 날 걷다가 다리를 헛디뎠다. 평소 무관심했던 주변의 행인들의 사방에서 다가와 안부를 물었다(한승혜 2021: 17).

9 무(無)개념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위진(魏晉) 때다. 괘상(郭象)은 『장자주(莊子注)』에서 '무(無)'는 없음을 지칭하는 이름일 뿐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존에 '무'가 가지고 있었던 형이상학적 의미를 모두 없애 버렸다(김진선 2017: 295).

과 변화의 순환이 끊임없이 지속되기에 특정한 어떤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서 무라고 한 것이다.

공간이 존재의 생성 근원이지만 무이기에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지 않으며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하지만 공간에는 다양한 장소들이 존재하며 그 장소들은 각각 그것들만의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인간이 있으면 인간성이 있다. 즉, 장소가 있으면 장소성이 있는 것이다(이명수 2013: 128). 이러한 공간과 장소성의 관계는 도가에서 도(道)와 물(物)의 관계로 다루어진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간에서 장소를 형성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때로는 장소성이 오래도록 유지되지만, 때로는 시시각각 장소의 의미가 바뀌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소의 의미 변화가 빠르고 다양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의 시골 감귤 창고가 유명한 식당이 되거나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를 집안 식탁에서 즐길 수도 있다. 장소의 변화는 그 장소와 관계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변화는 무한하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간 그 자체의 무한한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도가의 최고 개념인 도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능 근거로써 없는 곳이 없고(道無所不在) 무한하며 특정한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다. 어떤 장소 어떤 사물을 가리지 않으며, 그것들이 특정한 가치를 구현하도록 강제하지도 않는다.

태산에서 아주 사소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공간에서 각자 자신으로 존재하며 간섭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각자 고정불변 하는 고유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장소의 관계 속에서 탈고유화 하면서 의미가 새롭게 생성된다. 오래된 기와의 이끼는 고옥(古屋)의 기와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하나의 식물이지만 약을 제조하는 약방에서는 약재가 된다. 여기서 그 오래된 기와집과 약방이라는 장소성은 이끼의 물성에 작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미(성)의 생성과 관계의 작용은 일방적이지 않다. 우리는 관계의 상호 작용에서 인과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우연적 반복의 결과일 뿐이다. 주목할 것은 변화가 생성되는 도-공간의 의도를 가지고 방해하거나 해치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더 아껴서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도-공간 안에서 자연스러

은 변화의 생성이 탈고유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간 자체는 특정한 규정을 갖지 않는 무의 특성을 갖는다.

4. 결론

신자유주의 시대 다원화된 개인들의 이질적 공존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가 이미 다원화 사회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라고 하면서도 민족문화, 민족국가와 같은 근대적 서사에 매여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타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배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혐오는 근원적 불안과 공포의 대상인 타자에게 완전한 정체성의 탈을 씌우고 부정하고 배제하려는 폭력이다. 왜냐하면, 다원화된 개인은 불완전하기에 특정한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동질성으로 이질적 타자에게 면역적 논리를 적용하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기에 자기의 순수성에 천착하여 타자를 배제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자기 면역화는 바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자기 보존적 행위가 아니며, 타자는 ‘나’에게 새로운 생성의 필연적 존재이기에 공동체 역시 바깥으로의 감염과 상처에 열려 있어야 새로운 생성의 계기가 마련된다.

디아스포라적 공간은 이주로 인해 형성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차이들의 혼종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다원화된 개인들은 어떤 하나의 완전한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불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은 다양한 개인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탈고유화 하면서 살아간다. 일상에서 다원화된 개인들이 동등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인 ‘만남 구역(Begegnungszone)’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우연적인 자기 통제와 책임이 탈규제화에서 가능했으며, 이것은 규제 너머에 혼란이 아니라 공유 공간 있음을 보여주었다. 디아스포라적 공간의 이질적 타자로서 이주자(한인)들은 공간의 장소성을 탈고유화 하면서 다양한 차이들의 공존 공간을 만들었고, 만남 구역의 다원화된 개인으로서 교통 주체들은 탈규제화 속에서 다

양한 차이가 존중되는 공간을 출현시켰다.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질서를 규범화하고 그것의 보편적 근거를 고유한 내적 본성에서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고유한 목소리와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도가적 사유에서 공동체는 다양한 개체들의 다름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오히려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나 내적 고유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도-공간의 인식은 다양한 차이들의 이질적 공존을 위한 사유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이질적 공존은 무엇보다 타자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적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유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다원화된 개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차이를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질적 공존이 가능한 공간은 어떤 권위와 제도가 아니라 탈규제화 속에서 탈고유화 하는 개인들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이다.

교신: 김진선(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cumdaphil@gmail.com)

Correspondence: Jin Sun Kim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Jeju National University)(cumdaphil@gmail.com)

2021.12.21 접수, 2022.02.01. 심사, 2022.02.17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연희·정유리, 2014, [현장&현장 사람들 4: 대구대학교 다문화정책연구소 김연희 소장] 한민족 다문화: 동질적인 토대 위에서 극복해야 할 차이, 현대사회와다문화, 4(2), 178-190.
- 김옥선, 2017, 타자와의 공존, 그 가능성으로서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17, 277-306.
- 김은주, 2018, 정의와 차이의 정치-아이리스 마리온 영의 정의론의 의미에 대하여, 시대와 철학, 29(4), 7-40.
- 김진선, 2017, 郭象 철학의 無爲-自然 논리구조 연구-‘自爲’, ‘自用’, ‘自治’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2, 290-324.

- 김진선, 2020,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탐라문화, 65, 7-37.
- 김치완, 2020,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탐라문화, 65, 39-74.
- 김현숙 외, 2013, 다문화(공간)와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10, 5-43.
- 박경태, 2016, 한국사회와 난민: 난민과 환대의 책임, 문화과학, 88, 47-65.
- 박기준·송기욱, 2021, 스물존 내 운전자의 교통규범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1, 33-38.
- 박구용, 2003, 우리 안의 타자, 철학과현실사.
- 신용하 외, 1985,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 스케치북다이어리, 2017, <https://humandrama.tistory.com/1612>.
- 엄태완, 2010, 탈북난민의 위기적 경험과 외상, 경남대학교 출판부.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이명수, 2013, 존재의 공간과 로컬리티,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로컬리티 연구총서 09, 111-133.
- 이문철, 2015, 민족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인지와 타자의 시선, 한국학연구, 38, 513-535.
- 이상봉, 2013,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 이주와 로컬리티 재구성, 로컬리티 연구총서 12, 214-249.
- 이선미, 2006, 능동적 시민과 차이의 정치, 한국여성학, 22(1), 147-183.
- 최성식, 2008, '동질윤리'를 넘어 '차이윤리'로, 철학연구, 106, 대한철학회.
- 최진석, 2005,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 한승혜, 2021, 다정한 무관심, 도서출판 사우.
- 莊子, 莊子, 김학주 옮김, 2010, 현암서가.
- Balibar, E., 1993, La philosophie de marx, 마르크스의 철학, 배세진 옮김, 2018, 오월의봄.
- Charim, I., 2018, Ich und die anderen, 나와 타자들, 이승희 옮김, 2019, 민음사.
- Deleuze, G., 1969, Logique du sens,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1999, 한길사.
- Esposito, R., 번역화와 폭력, 김상운 옮김, 2015a, 진보평론, 65, 309-323.
- Esposito, R., 2008, Termini della Politica. Comunità, Immunità, Biopolitica, 번역적 민주주의, 김상운 옮김, 2015b, 문화과학, 83, 390-415.
- Falk, R., 1998, "The rights of peoples", in J. Grawford, The rights of peoples. Oxford, Oxford UP.
- Harari, N. Y., Homo deus, 2017, 호모 데우스, 김명주 역, 2017, 김영사.
- Savidan, P., 2009, Le multiculturalisme, 다문화주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 이산호·김휘택 옮김, 2012, 도서출판 경진.
- Taylor, Ch., 1994, Multiculturalisme. Difference et democratie, Paris, Flammarion.

The Problem of Perception of the Other and Space for Heterogeneous Coexistence

Jin Sun Kim*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heterogeneous coexistence of pluralized individuals in the neoliberal era. First,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oth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ere discussed.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a deregulation space where heterogeneous individuals exchange differences equally was reviewed.

The space of coexistence is a community. Humans are originally co-existed, and the perception of the other that I inevitably have to face as an object of my existence is essential. Since humans are understood as being defined in the mutual relationship of the community, not only 'I' but also heterogeneous others are individuals as their subjects. Here, individuals are pluralized individuals with diversity in them, and there is a need for a neutral space where these individuals can meet equally as subjects of difference. This space is made possible through deregulation, and in the space, pluralized individuals can share their differences.

Keywords Pluralized Individual, Heterogeneous Society, The Other, Community, Deregulation Space

* Jeju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Philosophy, Research Professor, cumdaphil@gmail.com